

오늘부터 수능 원서접수

도교육청, 내달 8일까지 재학 혹은 출신 고교·도내 6개 관할 교육지원청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24일부터 시작된다. 2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접수는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로 제한한다. 대리접수자는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출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다만, 졸업자 중 타 시험지구 거주 이전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도

가능하다. 전북에 주소를 둔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해야 한다.

도내 시험지구교육지원청은 6곳으로 △전주교육지원청(전주·완주·진안·무주) △군산교육지원청(군산) △익산교육지원청(익산) △정읍교육지원청(정읍·고창) △남원교육지원청(남원·장수·임실·순창) △김제교육지원청(김제·부안) 등이다.

원서접수 관련 문의는 전주(270-6062), 군산(450-2642), 익산(850-8830), 정읍(530-3021), 남원(620-7831), 김제(540-2571)로 하면 된다.

특히, 지원자는 응시원서와 사진 2매

(원서접수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 응시수수료,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또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졸업자 중 거주지 이전 등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수험생은 학력인정 서류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이 시험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6일에 치러지며, 성적통지표는 12월 8일 교부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대학원생들 연구 성과 '탁월'

수산식품 방사능 검사장치 성능예측 '최우수발표상' Kr-85 함유 전자튜브 사고·폐기 시나리오 따른 위험도 평가 '우수논문 발표상' 수상 등 잇따라



최효상 방예진 심하영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탁월한 연구 성과를 보였다. 23일 전북대에 따르면 플라즈마 및 양자 빔 응용공학과 대학원생들이 2023년도 한국방사선산업학회 신진연구자 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과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최효상(석사과정, 지도교수 서희) 대학원생은 '전산 모사를 통해 설계한 수산식품 방사능 검사장치의 성능예측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을 발표해 최우수논문상을 받았다.'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수산식품 스마트 가공 기술개발 사업'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는 문제해결 전산모사를 통해 수산식품 내 방사능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치를 설계하고 각 검사

대상별 최소검출방사능을 평가해 검사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것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방예진(석사과정), 심하영(박사과정) 대학원생도 각각 우수논문 발표상의 영예를 안았다.

방예진 대학원생은 Kr-85 함유 전자튜브의 사고 및 폐기 시나리오에 따른 위험도 평가 연구논문을 발표해 우수논문 발표상을 수상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 연구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제품 중 활동도가 높은 전자튜브의 방사능학적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

는 모든 피폭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한 것이다.

또한 심하영 대학원생은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수행한 '국내 방사능 재난 구호소에 대한 방사선 방호 성능기준 개발'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확대된 국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 설치하게 되는 구호소에 대한 방호성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대피시설 및 방재 관련 시설에 대한 방호 기술 기준을 조사해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내 구호소에 대한 방호성능 기준(안)을 도출한 것이다.

최효상 학생은 "후쿠 수산식품 방사능 검사장치를 제작해 우리나라의 안전한 수산식품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예진 학생은 "앞서 수행한 위험도 평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안전 관리 방안을 도출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심하영 학생은 "후쿠 대피과정 중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재난 약자를 위해 병원시설에 대한 별도의 방호요건을 도출해 방사능 재난 시 원전지역 주민들의 방사선 영향 저감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23일, 2023년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이 전주우림중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과 함께 민방위 훈련에 동참했다.

을지연습 연계... 도교육청, 민방위 훈련 실시

공습상황 대비 대피훈련·교육... 학생·교직원 안전 보장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년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공습상황에 대비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도내 6개 지역(군산·익산·김제·완주·고창·부안) 학교(기관)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오후 2시 라디오 방송을 통한 훈련 공습경보 발령을 시작으로 대피소 이동 대피소 내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 자체 교육 실시 후 경보제에 따라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까지 총 20분간 이뤄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전주우림중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과 함께 민방위 훈련에 동참했다. 서 교육감은 "모든 훈련과 교육은 실천처럼 진행해 안전 행동 요령을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하다"면서 "비상사태에 대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보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완주도서관

내달 5일까지 애칭 공모

전북도교육청 완주도서관은 봉동읍 봉동동서로 109(장기리) 일원에 증축 중인 도서관 애칭을 9월 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23일 완주도서관에 따르면 총면적 1,364㎡(지상 2층) 규모로 2023년 말 완공 재개관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도서관 명칭이 아닌 완주군의 지역 특색이 반영된 간접하고 부르기 쉬운 애칭을 지어 주는 것으로, 관내 소속 직장인이거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네이버폼,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애칭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누리집(ub.hc.gok.kr/wjlib)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공모전 담당(063-262-223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31일 교원임용시험 공개 설명회

도교육청, 4세대 나이스 도입 따른 온라인 원서접수 요령 등 안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31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교원 임용시험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원임용시험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험기간중 집중적 문의(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응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이익 유형으로는 원서접수 요령 미숙으로 온라인 접수 실패, 응시자 유의사항 미숙으로 부정행위 처분 및 장애인(임신부)의 시험 편의제공 미신 청 사례 등이 있다.

이날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4세대 나이스 도입에 따른 온라인 원서접수 요령 △중등 공·사립 동시 지원제도

△응시자 유의사항(부정행위 예방) △시험관련 정보공개 사항 및 각종 문의(민원) 사례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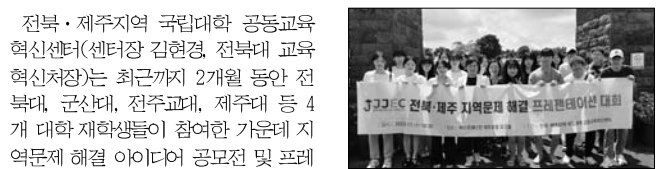
참가 신청은 온라인 (https://naver.me/CzgfCvxo) 또는 QR코드를 스캔해 성명, 전화번호, 대상구분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제출하면 된다.

이성기 교원인사과장은 "미래교육을 이끌어 갈 우수교사를 선발하는 교원 임용시험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임용시험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 '톡톡'

전북·제주 국립대학 공동교육혁신센터, 문제 해결 공모전 주차 잔여석·교통량 체크 어플 개발 등 우수 아이디어 시상



전북·제주지역 국립대학 공동교육혁신센터(센터장 김현경, 전북대 교육혁신처장)는 최근까지 2개월 동안 전북대, 군산대, 전주교대, 제주대 등 4개 대학 재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및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1차로 진행된 공모전에는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 30여 건이 응모됐다. 이후 심사를 통해 '주차 잔여석 및 주변 교통량 체크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7건의 우수 아이디어가 수상 영예를 안았다.

또한 2차로 진행된 프레젠테이션 대회에는 6개팀, 18명의 학생이 참여해 지역문제 및 리빙랩 사례에 대한 특강과 퍼실리테이터의 멘토링 등이 진행됐다.

특히 학생들은 지난 16~18일 제주대에서 현지답사와 인터뷰 등을 직접 진행하며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6건의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이 중 '소농가를 위한 식품 가공 사업' 아이디어



호원대, 1학기 교과목 인증 기본인증 우수 교과목 시상식

호원대학교 교육혁신처 교육성과혁신센터는 23일 총장실에서 2023학년도 1학기 교과목 인증제 기본인증 우수 교과목에 선정된 6개 교과목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본인증 교과목 중 인증기준에 따라 최종 6개의 기본인증 우수 교과목을 선정했다. 기본인증 우수 교과목은 건강사정(간호학과 이수미), 성인간호학(간호학과 성지숙), 캠퍼스포리작곡과이론1(실용음악학부 지영수), 유아음악교육(유아교육과 최우수), 푸드코디네이션(푸드서비스경영학과 오석창)학과 류무희, 인간관계와사회(교양과 장은지) 등이다.

강희성 총장은 "우리 대학이 선도적으로 시행한 교과목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라며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호응

전주대학교 박물관(관장 이상균)에서 운영하는 2023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사)한국박물관협회가 주최하는 2023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전주대학교 박물관이 2014년부터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역민들에게 인문학의 이해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슬기로운 의·식·주 생활'이란 주제로 인간 생활의 중요한 의(衣)·식(食)·주(住)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허먼 옷을 입어볼까? 체험에서는 한복을 활용해 한복끼리 만들기 및 전통 문양을 활용한 에코백 만들기 체험이 있다. 또 '홀에서 그릇으로' 체험에서는 토기의 탄생 및 발전 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고 토기 복원 체험과 전통 문양 머그잔 만들기 로 구성됐다.

특히, 토기복원 체험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뚝딱뚝딱 벽돌 쌓고 기와 올리고' 체험은 주거 양식의 변



전주교대, 올 가을학기 일본 교환학생에 장학금 전달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23일 2023년 가을학기 일본 오사카교육대학교 교환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박가현(사회교육과 2년) 학생은 백민원의 장학금을 받았으며, 1년 동안 일본의 진화 된 초등교육을 체험할 예정이다.

오사카교육대학교 교환학생은 특별 장학금 신분으로 유학생 기숙사를 사용하고, 일본어·문화·일본학·일본 전통문화(서예, 도자기, 검도) 등의 프로그램을 수강한다.

박병춘 총장은 "좋은 기회인 만큼 일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오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정은성 기자